



수원을 논하다
연중기획

사람중심 더 큰 수원

- 좌담회** 사람과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더 큰 수원
- 현안분석** 민선 6기,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어가다
강신구 [수원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정책팀장]
- 정책제안** 사람중심 더 큰 수원, 무엇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선진사례** 정조의 더 큰 도시 '화성' 만들기
이달호 [수원화성연구소 소장]

수원시는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에서도 시정운영의 핵심으로 '사람'을 꼽았다. 이에 걸맞게 시는 불가피한 시행착오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민참여와 소통의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민선6기에서는 이러한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더 큰 수원'을 그렸고 올해로 그 절반을 지나왔다. 수원은 어떻게 성장해왔을까. 구상한 밑그림에 어울리는 색이 칠해지고 있는지 한 번 들여다 볼 때이다. 민선6기 출범 3년차로 접어드는 지금 '더 큰 수원'의 성과와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민선6기를 말한다

사람과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더 큰 수원

민선5기부터 이어진 '사람' 중심의 수원시정운영은 시민참여 거버넌스행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선6기는 시민과의 소통을 기초로 '더 큰 수원'을 만들고자 100대 과제를 제시해 추진했다. 어느덧 6월, 그 시작의 절반이 지났다. 민선6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7월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시정성과를 점검하고 후반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의견을 나누고자 좌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수원시 김주호 기획조정실장, 수원시의회 염상훈, 조석환 의원을 모셔 수원시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정연구원 이재은 원장 수원시 김주호 기획조정실장 수원시의회 염상훈 의원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

이재은 원장 먼저 민선6기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민선6기 시정 목표가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인데 여러 부분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다는 외부 평가도 받고 있어 시민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먼저 민선6기 전반기 성과에 대해 김주호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설명해주기 바란다.

수원시 김주호 기획조정실장 수원시는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 따뜻한 도시를 민선6기의 3대 비전으로 삼았다. 안전한 도시는 알짜 일자리, 사회 안전장치를 통한 아이들과 엄마의 안전, 수원의 균형발전 등을 과제로 설정했고, 건강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 미래도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따뜻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복지, 교육문화도시, 수원형 시민자치 등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다.

또한 일자리창출, 도시안전, 복지 등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중에는 좋은 성과를 얻어 고용률 전국 1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육성사업 등을 집중 추진했다.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는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 어린이집 3개소, 영통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특히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군 공항 이전을 통한 도시의 재설계, 다양한 도시재생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환경도시로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과 국제교류 및 협력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적절한 대응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안전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켰고, 교육부에서는 청소년 희망등대 사업, 사회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우리시의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초기단계에는 그 시작의도에 맞게 많은 시민이 참여했는데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참여가 정체되어 있다.”

이재은 원장 시정운영의 성과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좋은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시민들을 가장 많이 접촉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원님들께서 먼저 민선6기 지난 2년 동안 시정운영에 대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란다.

수원시의회 염상훈 의원 민선6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아직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먼저 수원이 언제부터인가 범죄도시라는 인식이 생겼다. 이런 문제는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나 자율방범 순찰 등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주민참여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참여 확대에 대한 노력이 있었지만 정체 단계에 있는 느낌이 있다. 초기단계에는 그 시작의도에 맞게 많은 시민이 참여했는데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참여가 정체되어 있다. 때문에 그 이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싶다.

일자리 분야는 실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일자리, 특히 명퇴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보면 퇴직 후 구직 방법에 있어서나 퇴직 이전의 일과

“추진이 미흡한 부분과 기존의 관성 때문에 개선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개혁과 혁신 원년의 해’로 선포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는 다른 새로운 분야의 일을 시작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원시 산하단체가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방재정 개편 등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산하단체의 통합문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 민선5기를 거쳐 민선6기까지 시정운영은 평균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전의 화장실 문화 사업같이 수원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사업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올해 발생한 지방재정 문제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선5~6기 6년 간 추진이 미흡한 부분과 기존의 관성 때문에 개선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개혁과 혁신 원년의 해’로 선포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또한 관행적으로 치르는 낭비성 행사, 방대해지는 산하단체, 늘어만 가는 보조금 사업 등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분당선이 개통되어 수원에 지하철시대가 도래해 교통체계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기존 1호선,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활용한 획기적인 버스노선 개편과 민선6기 추진 과제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버스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방재정개악철회를 위한 서명부 전달 및 공동기자회견 © 수원시청

이재은 원장 민선6기가 100대 혁신과제를 발표했는데 이들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은 좋은 시정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김주호 실장 현재 100대 공약사업을 실천하고 있는데 전략사업이 30개, 일반사업이 70개다. 전반적으로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2개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소기업지원관 설립과 서수원 지역 병원 건립 문제가 그것이다. 이들 사업은 중앙 예산 지원 문제나 시 자체로만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원비행장 이전과 수원역 주변에 대한 정비 계획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외에는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민선6기 마무리 이전까지 전체사업의 82%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은 원장 문제점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면 훨씬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 단계에서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 원안대로 추진되면 매년 1800억 원이라는 수원시의 재원이 사라지게 되는데 지금 100대 과제도 마찬가지이고 수원시가 갖고 있는 주요 현안과제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짧게 의견 주신다면?

김주호 실장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난 4월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수원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만일 이 문제가 원안대로 추진이 된다면 수원시로서는 상당히 큰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고 그동안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중단될 것이다. 현재 우선적으로 12개 정도의 시혜성 복지시책을 중단한 상태다. 앞으로도 복지 분야의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염상훈 의원 시민의 한사람이자 시의원으로서 지방재정개편은 당연히 충격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라 저항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부득이하게 시행해야 한다면 일시에 시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기를 조절하고 정책 건의를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실제 원안대로 추진이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복지, 교육 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수립했던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모순점들을 중앙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석환 의원 2014년부터 시의회에서 수원특례시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했는데 그때 주장했던 것은 울산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공무원 수 등이 적어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달라고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특례는커녕 예산을 더 삭감한다고 하는 실정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수원시의 1년 가용예산이 1000억 원 정도인데 거기서 1800억 원을 더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수원경제를 파탄 내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개편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지방분권형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개편을 추진 할 때 지방분권형 개편 문제도 활발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



지방재정 건전화방안 진단 긴급 좌담회 © 수원시청





“수원시의 모든 정보를 한데 묶어서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래기획단을 구성 하고 있다.”

이재은 원장 지방재정 문제는 절차·내용상의 문제만으로도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다. 조례로 지정 된 것을 시행령으로 무효화시키는 근본적 자치법권 침해문제, 사전에 지방과 전혀 협의가 없이 추진된 집권적 행태, 해당 시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충격이 크다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재정계획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동시에 특례도시에 대한 강력한 요청과 대응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민선6기 초기의 성과, 아쉬운 점, 현안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 보았다. 민선6기 하반기 시정전략으로는 미래성장 기반 구축 및 추진동력 확보, 수원 군 공항 이전 개발, 신 기후체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인구절벽 시대에 따른 대응 등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에 대해 효율적, 전략적 방안이 있을지 말씀해달라.

김주호 실장 민선6기 하반기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의 모든 정보를 한데 묶어서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래기획단을 구성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수원시의 인구를 정확히 분석해서 도시, 교통, 문화, 체육, 복지 분야 등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미래방향을 설정해서 앞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체제로 나아가고자한다.

염상훈 의원 미래기획단 운영을 통해 수원시의 미래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을 만드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시민자치대학을 통해 시민역량을 키우고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마을계획단 운영 등 시민 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행정이 후반기에는 더욱 활성화가 되고 발전.지속 되어야 한다.

조석환 의원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자 올해 우리시 정책의 화두인 청년정책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 준비 중인 미래기획단 등 시에서 새롭게 정책방향으로 내 건 것들에 대한 착실한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효율성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던 각종 행사, 문화예술, 체육 등 행사들에 대해 혁신적인 개선 노력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재은 원장 민선5~6기 수원시정의 핵심은 ‘사람’이다. ‘관’보다는 ‘민’이 우선이라는 뜻으로 이 때문에 많은 거버넌스 정책과 제도들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행정이라는 관점에서 아직은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염상훈 의원 시민참여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 구성원을 보면 결국은 같은 사람이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체계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소수의 시민만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석환 의원 거버넌스를 위한 주민 참여에 새로운 인재 유입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네트워크 정당이나 모바일 정당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집단 민원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행정이 이에 주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재은 원장 7월 1일이면 민선6기 후반기가 시작된다. 수원은 인구가 125만을 넘어 13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더 큰 수원으로 가는 데 가장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주호 실장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 수원 군 공항 이전문제와 스마트폴리스 조성, R&D사이언스파크 개발, 컨벤션센터 건립, 특화지구 육성 문제, 수원산업단지 확충,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등이 수원의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부채가 줄어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빛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 한다. 앞으로 인구절벽시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수 원시 미래기획단을 빨리 구성해서 수원시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민선6기 후반 기의 정책방향이다.

염상훈 의원 거버넌스 행정을 위해서는 관 주도에서 시민주도형 행정으로의 탈피가 필요하다.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에 대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이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것이 수 원시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석환 의원 민선6기 하반기 2년은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및 혁신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율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 시가 민선5기 들어오기 전 부채 규모가 3000억 원 정도였는데 현재 300억 원으로 줄었다. 부채가 줄어 재정적으로는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빛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미래기획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야 한다. 예전에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시민들의 반발이 상당 했다. 그러나 현재는 수원에서 시작한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고, 최근의 여러 문제에서 보았듯이 수원시가 선제 대응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런 유형의 시책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이재은 원장 중요한 말씀 주셨다. 부채 없이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시민의 삶의 질 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측면으로 보서는 오히려 역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지방정부에서도 일부 부채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수원발전을 위해서 시민, 공직자는 물론 의회와 연구원 등 시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각 구성원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염상훈 의원 수원은 인구에 비해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과중한 업무로 공직자들의 피 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피부에 닿는 정책을 원 하기 때문에 다소 힘들어도 더 활발한 거버넌스 행정을 펼치면 좋겠다.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목 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회차원의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조석환 의원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역주민과 시정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원에서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집행부에서도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더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김주호 실장 시민의 욕구가 다양화 되고 있고 더불어 행정의 부분도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그 러나 중앙정부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 등으로 제한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밖에 없어 행정서비스를 시민의 체감온도까지 높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 로 해소하기 위해 현행 법률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각급 산하기관들을 확대 운용하고 있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주요 시정 정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하여 각종 연구사업을 확대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정연구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각종 시정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염상훈 의원 덧붙이자면 공부하는 의회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행정과 의회가 쌍 두마차처럼 같이 흘러가야 하는데 때로는 의회에서 대안 없이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서도 공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시정연구원에서 의정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되어 의원과 시민들의 생각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재은 원장 좋은 말씀 고맙다. 우리 연구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말 씀으로 받아들이고 원장을 포함해 모든 연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수원발전을 위해 헌신하 겠다.

오늘 민선6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반기 2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수원시정에 대한 회 고와 반성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김주호 실 장님과 염상훈, 조석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민선 6기,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어가다

강신구 | 수원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정책팀장



시민공감36.5 © 수원시청



시민공감36.5 © 수원시청

소통으로 더 큰 수원의 기반을 마련하다

염태영 시장은 민선5기 지방선거에 당선되면서 사람중심의 휴먼시티 구현을 위해 '사람이 반가운 도시, 수원'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였다.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장 스스로 권한을 시민들 앞에 내려놓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바탕에는 '소통은 시민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고, 참여는 시정'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이러한 염태영 시장의 생각과 노력에 시민들은 마음을 열고 참여와 제언으로 수원시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 나가기 시작했고, 그 첫발을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함께 해 주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시민약속사업의 평가와 시정의 시책들을 평가하는 '좋은시정위원회', 학생과 성인이 어우러져 수원시 예산 편성에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들이 함께 모여갈등을 풀어나가는 '시민배심원제',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에 소개되는 '도시계획 청소년계획단과 시민계획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500인 원탁 토론회'는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시정을 위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참여 거버넌스 행정은 수원시의 무형자산이자 가장 위대한 인프라가 되었다.

더 큰 수원으로 시민들에게 보답을 약속하다

염태영 시장이 6기 지방선거에 재선으로 당선됐다. 민선5기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에 보답하고, 선거기간 중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과 시민단체가 제안한 사업, 그리고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혁신과제와 시정 혁신단의 제안 사업 등을 모아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담은 약속을 시민들에게 내 놓았다.

그 세 가지 약속은

첫째, 수원의 실질적 안전과 성장을 견인할 '안전한 도시 수원'

둘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한 도시 수원'

셋째, 복지와 교육, 문화가 번성하는 '따뜻한 도시 수원'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약속을 위해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하고 숨 가쁘게 달려 온지 어느덧 2년, 그 진행과정은 과연 어떠할까?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는 민선 6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100대 과제'에 대한 1년 6개월간의 추진사항에 대해 평가를 마치고, 지난 2월 2일 첫 평가보고회를 가졌다. 그리고 30개 혁신과제와 70개 약속사업 추진의 궁극 함이 담긴 상자도 열었다. 보고회는 격려와 함께 앞으로의 2년 6개월도 성실히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시간도 함께였다.



2015년 좋은시정위원회운영 및 시민과의 약속 평가 보고회 © 수원시청

추진현황

분과위원회별 추진현황

(단위: 건수)

| 위원회명 | 계 | 혁신과제 | | | | 약속사업 | | | |
|----------|-----|------|----|-----|-----|------|----|-----|-----|
| | | 소계 | 완료 | 추진중 | 미착수 | 소계 | 완료 | 추진중 | 미착수 |
| 총 계 | 100 | 30 | 0 | 30 | 0 | 70 | 5 | 65 | 0 |
| 일 자리 위원회 | 10 | 3 | - | 3 | - | 7 | 1 | 6 | - |
| 안전·도시위원회 | 26 | 3 | - | 3 | - | 23 | 1 | 22 | - |
| 환경·교통위원회 | 15 | 1 | - | 1 | - | 14 | - | 14 | - |
| 자치·교육위원회 | 35 | 19 | - | 19 | - | 16 | 3 | 13 | - |
| 복지·여성위원회 | 14 | 4 | - | 4 | - | 10 | - | 10 | - |

*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이행율(2014. 6. 30. 기준): 88%

(2015. 12. 31. 기준 이행율 5%)

분과위원회별 추진율 현황

(단위: 건수)

| 위원회명 | 계 | 혁신과제 | | | | | 약속사업 | | | | |
|------------------|-----|------|------|--------|--------|--------|------|------|--------|--------|--------|
| | | 소계 | 100% | 50% 이상 | 25% 이상 | 25% 미만 | 소계 | 100% | 50% 이상 | 25% 이상 | 25% 미만 |
| 총계 | 100 | 30 | 0 | 16 | 10 | 4 | 70 | 5 | 16 | 29 | 20 |
| 일 자리 위원회 (48.0%) | 10 | 3 | - | 2 | 1 | - | 7 | 1 | 2 | 2 | 2 |
| 안전·도시위원회 (36.6%) | 26 | 3 | - | 1 | 2 | - | 23 | 1 | 3 | 9 | 10 |
| 환경·교통위원회 (34.2%) | 15 | 1 | - | - | 1 | - | 14 | - | 4 | 5 | 5 |
| 자치·교육위원회 (47.9%) | 35 | 19 | - | 10 | 5 | 4 | 16 | 3 | 1 | 9 | 3 |
| 복지·여성위원회 (52.8%) | 14 | 4 | - | 3 | 1 | - | 10 | - | 6 | 4 | - |

(2015. 12. 31. 기준 이행율 43.6%)

목표연도별 사업현황

(단위: 건수)

| 위원회명 | 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6월 | 2018.7월 이후 |
|----------|-----|-------|-------|-------|---------|------------|
| 총 계 | 100 | 6 | 15 | 6 | 51 | 22 |
| 일 자리 위원회 | 10 | 1 | 1 | 1 | 5 | 2 |
| 안전·도시위원회 | 26 | 1 | 5 | 2 | 5 | 13 |
| 환경·교통위원회 | 15 | - | - | - | 13 | 2 |
| 자치·교육위원회 | 35 | 4 | 5 | 2 | 19 | 5 |
| 복지·여성위원회 | 14 | - | 4 | 1 | 9 | - |

* 민선6기 시민과의 약속 예상이행율(2018. 6. 30. 기준): 78%

| 평가결과 | | 총괄 | | | | | (단위: 건수) |
|------|-----|------------|----|----|----|------|----------|
| 추진상황 | 계 | 분과위원회 평가결과 | | | | | |
| |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잠정보류 | |
| 총계 | 100 | 18 | 71 | 8 | 1 | 2 | |
| 완료 | 5 | 3 | 2 | - | - | - | |
| 추진중 | 95 | 15 | 69 | 8 | 1 | 2 | |

| 분과위원회별 | | | | | | | (단위: 건수) |
|----------|-----|------------|----|----|----|------|----------|
| 위원회명 | 계 | 분과위원회 평가결과 | | | | | |
| |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잠정보류 | |
| 총계 | 100 | 18 | 71 | 8 | 1 | 2 | |
| 일자리위원회 | 10 | 1 | 5 | 2 | - | 2 | |
| 안전·도시위원회 | 26 | 5 | 21 | - | - | - | |
| 환경·교통위원회 | 15 | 2 | 12 | 1 | - | - | |
| 자치·교육위원회 | 35 | 5 | 29 | 1 | - | - | |
| 복지·여성위원회 | 14 | 5 | 4 | 4 | 1 | - | |

더 큰 수원의 중점사업을 알아보다

연태영 시장은 더 큰 수원을 위한 핵심과제로 30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그중에서 10개 사업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분야 1개 사업, 자치교육분야 7개 사업, 복지여성분야 2개 사업이 그것이다.

약속사업의 전반적인 평가결과

시민약속사업 100대과제 중에는 임기중에 완료를 목표로 하는 사업외에도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스마트폴리스 조성 사업'과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자활지원사업'과 같이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도 22개 사업이나 된다.

일자리위원회 소관의 '일(자리) 복(지) 터진 사업'은 구체적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활력화라는 당위적 지향성이 있는 과제로 1년치 성과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중소기업지원관 건립은 국비지원대상 이외의 사업이어서 시비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잠정보류'하되 육성재단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서수원병원 유지'는 수원시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사안으로 '잠정보류'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혁신 중점과제 평가결과

| 위원회 | 혁신과제명 | 추진상황 (추진율) | 목표년도 | 담당부서 | 평가결과 | |
|-----------|---------------------|--------------------------------|---------|---------|-------|----|
| 일자리 | 일(자리) 복(지) 터진 수원 추진 | 40% | 2018. 6 | 일자리정책과 | 우수 | |
| | 아시아 인간도시 네트워크 추진 | 15% | 2018.12 | 문화예술과 | 보통 | |
| | 수원자치역량 강화교육 추진 | 35% | 2018. 6 | 정책기획과 | 우수 | |
| | 수원특정시(준광역시) 추진 | 40% | 2018. 6 | 자치행정과 | 우수 | |
| | 공무원 역량평가제도 도입 | 5% | 2017. 2 | 행정지원과 | 우수 | |
| | 자치교육 | 부패 Zero, 침범1등 수원실현 | 68% | 2018. 6 | 감사관 | 우수 |
| | | 수원형 주민자치회 모델 추진(1) | 30% | 2018.12 | | |
| | | 수원형 시민자치기본조례제정(2) | 40% | 2018. 6 | 자치행정과 | 우수 |
| | 복지여성 | 수원형 시민자치기본계획수립(3) | 30% | 2018. 6 | | |
| | | 사공(공동, 공정, 공개, 공감)이 만드는 더 큰 수원 | 85% | 2018. 6 | 정책기획과 | 우수 |
| 건강미래도시 조성 | | 55% | 2018. 6 | 장안구보건소 | 우수 | |
| | 여성친화도시-정책담당관 도입 | 70% | 2016. 6 | 여성정책과 | 매우우수 |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은 '안전지킴이 서비스 사업'과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영흥 힐링파크 사업과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브랜드 명확화와 정책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명 변경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수원 영흥 힐링파크와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환경교통위원회 소관의 혁신과제인 '생물다양성 기반구축사업은 민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실천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아토피 Free' 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였고, '방사능 Free'와 '꿈꾸는 놀이터' 사업의 경우 시민(학부모, 어린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

자치교육위원회 소관 사업들은 39개 사업 중 38개 사업이 우수 이상의 사업으로 특히 주민 자치와 시민자치 사업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시민약속사업 선정 시 특정 대상이 혜택을 받는 사업보다는 시민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 수원시희망여성일자리박람회
 2. 아토피센터
 3. 미래도시 세미나
 4. 인계울레 작은 도서관
 5. 청년의미래 “만나서이야기해요”
 6. 청년 일자리 창출 벤치마킹, 청년허브 커먼그라운드 방문
 © 수원시청

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여성 등 안전도시 추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어린이 초경바우처’, ‘임산부 건강 챙기기’사업 등은 최상의 추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중점약속사업인 ‘아동주치의제 도입’사업은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 및 사회보장제도 시설 협의운용 지침’에 따른 사업시행 불가로 2015년 사업비 전액이 반납되었고,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 또한 상위법과 충돌된 사업으로 복지부와 수원시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더 큰 수원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어느덧 경기도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한지 50주년이 된다. 1949년 수원이 수원시로 승격할 당시 수원은 부급인 전주, 마산, 진주, 군산, 청주, 춘천부 보다도 인구가 적은(52,772명) 도시였다. 1967년 6월 23일 경기도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수원인구는 131,031명으로 늘었고 49년이 지난 현재 1,225,769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게 하는 1번국도 및 경부선철도의 수원 통과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 선경직물, 한일합성, 대한방직 등 3대 직물공장과, 해태유업과 삼성전자가 등지를 틀면서 시작된 수원의 새로운 먹거리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미래전략산업을 위한 연구기관 유치,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먹거리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만들고 있다. 시민들의 이해와 소통이 큰 힘이 되었다. 이제 염태영 시장은 이러한 노력을 함께 해 온 시민들에게 ‘더 큰 수원’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더’는 부사로서 ‘계속하여, 또는 그 위에 보태어’와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떠한 의미를 가지던 그것은 시민들의 생각에 달려있다. 염태영 시장은 ‘지속성’에 의미를 더한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저성장 인구절벽시대의 5년과 10년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떠한 먹거리로 수원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2016년 신년기자간담회에서는 전문가, 시민, 공무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갈 미래기획단 구성을 제시하였다. 7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그리고 세계의 유명도시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고민하는 미래포럼도 기획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이루며 만들어낸 결과물은 국내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협치를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1번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125만 수원시민은 언제나 수원시와 함께, ‘인간 중심의 더 큰 수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모두가 꿈꾸는 미래의 청춘도시를 그려 본다.

사람중심 더 큰 수원, 무엇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김도영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2014년 7월 1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민선6기가 출범하였다. 민선5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연장선상에서 민선5기의 성과를 잇고, 좀 더 내실 있는 정책으로 성장시키려는 것이 바로 더 큰 수원이 본질일 것이다. 민선5기 수원시정을 통해 구현해 낸 '참여와 소통'의 정신은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민주적 시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에게 관심을 받았고, 이는 UN 해비타트 등 다양한 기관에서 그 의미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민선5기의 '참여와 소통' 정책은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기존의 과정과 절차보다는 결과 중심의 관행적 흐름을 전환시켰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부여된다.

전문가와 행정 중심의 도시계획을 시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전환을 모색했던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우리가 사는 마을을 우리 스스로 만들자던 「마을르네상스」,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 스스로 쓰임을 결정하도록 돕는 「주민참여 예산제」, 정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불협화음과 갈등을 독선적, 일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중재하는 「시민배심원제」, 자동차 중심의 도시공간을 보행 중심의 도시공간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한 「생태교통 수원, 2013」 등 다양한 패러다임의 변화시도에 타 지자체에서는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 뜨거운 박수 속에는 처음이라는 부정적 시선을 이겨낸 수원시의 용기와 혁신적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수원시의 경험적 자산을 공유해 줌으로서 혁신적 정책 추진의 실패가능성을 감소시켰다는 점이 포함된 것이다. 통상 행정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실패에 대한 용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정신에 박수를 치기보다는, 기존 업무를 갈등 없이 처리하기를 요구하고, 실패에 대해 경험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실패의 책임을 묻는 것에 익숙하다. 그런 행정구조에서 수원시가 새로운 일들을 과감하게 도전했으니 타 지자체에서는 그저 고마울 뿐이다. 그리고 다시 수원을 주목하고 있다. 민선5기 추진되었던 민주적 시정운영 시스템이 가져오는 정책적 수확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민선6기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기대하고 있다.



생태교통2013 2주년 기념행사 © 수원시청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 수원시청



제4회 수원 마을 축제 © 수원시청

민선 5기 수원시의 민주적 시정운영 시스템은 무엇을 낳았나?

일반적인 정책추진과정은 ① 정책 제안, ② 예산 편성, ③ 계획 수립, ④ 정책 실행 과정으로 진행된다.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⑤ 갈등은 해소하고, 전반적인 정책추진과정을 모니터링 한다. 일반적 정책추진과정에 좋은시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마을르네상스, 시민배심원제 등 다양한 참여정책을 접목시켜 민주적 시정운영시스템의 골격을 완성하였다.

수원시의 민주적 시정운영 시스템의 참여자는 매년 증가하여 2013년 기준 4,000여명까지 증가하였다.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2012년 수원시 전체예산의 1.72%, 2013년 0.68%를 차지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상의 증가와 별개로 시민의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을 더욱 주목할 만하다. 현재까지는 수원시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한계는 존재하지만, 참여시민들 사이에서 “그 아이디어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제안해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민계획단에서 다뤄야 하는 것 아냐?”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통상 시민참여의 부정적 이유로 제기되는 시민역량 부족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시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은 시민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특

1 일반시민들의 관심증가는 매우 반길 일이지만 2012년 참여시민의 수가 공무원의 숫자를 넘어섰고, 2013년 기준 공무원 수 대비 참여시민의 수가 150%를 상회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다.

히 초기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연구모임인 ‘대동계’ 등의 활동은 행정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스스로 성장을 증명하고 있다.

시민의 인식변화, 시민역량이 증대, 민주적 시정운영 시스템의 성과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민선5기의 민주적 시정운영 시스템이 성숙한 시민을 낳았다는 점이다. 이제 성숙한 시민과 무엇을 한 것인가에 대한 더 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을 키울 것인가?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은 무엇을 키우는 것이 목표인가? 수원, 화성, 오산의 통합을 통해 수원의 물리적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인가? 인구 125만 명의 비정상적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특례시, 광역시 등의 승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높이려는 것인가? 민선5기 사람중심의 가치, 양적 성장을 이룬 민주적 시정운영 시스템의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과연 무엇을 키울 것인가? 수많은 질문은 백일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 좋은 성과를 보이면 좋은 것 아닌가? 다만 힘을 주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2 영태영 수원시장이 민선6기 취임사에서 밝힌 Mr.일자리와 취임 1주년에 밝힌 청년 정책은 큰 틀에서 사람중심 더 큰 수원에 포괄되는 정책이지만, 그 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상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응노력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일자리, 청년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임에 분명하다.



1. 칠보산 생활놀이 공동체 놀이,
 2. 조원1동 사랑길린대추굴추진팀 '대추나무 가꾸기 활동',
 3. 정지3동 서호천의 친구들 '구석구석 반짝공연 소름',
 4. 산드래미 마을 '벼룩시장'
 © 수원마을르네상스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은 민선5기 사람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 정책의 발전을 통해서 수원시민의 삶의 질, 자부심 등을 키우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민선5기 혁신적 정책으로 집중 조명을 받았던 3가지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마을르네상스 사업이다.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례로 주목받아 왔다. 주민교육을 통한 사람 육성, 500여 개의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드는 등 마을만들기의 씨앗을 지역에 뿌리고 있고, 이로 인한 성과는 국내의 벤치마킹으로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마을만들기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그 성과를 일정부분 인정받고 있다. 마을르네상스의 성과와 한계는 별도 논의에 불이더라도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남을 주목해야 한다. 마을르네상스에서 추구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의 성과와 가치를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시재생, 주거복지, 사회적경제 영역을 포괄하는 도시재단 설립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단의 설립 자체가 민선5기 마을르네상스 정책의 발전적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마을르네상스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등의 연계 및 확산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었다는 점, 마을르네상스 사업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롭게 정책을 재정비할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좀 더 그 발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수원도시재단의 설립이 전 통합대상 조직 간 연계사업을 통해 단순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위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남는다. 다만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 체계 속에서 새로운 방향의 마을르네상스 정책의 발전과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의 사업의 확대를 기대하게 된다.

둘째, 생태교통 사업이다. 생태교통 수원 사업은 2013년 9월 한 달 간 진행되었지만, 그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사업기간은 2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에 익숙한 도시생활에서 자동차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2년이라는 시간으로 충분치 않다. 한 달간의 실험기간으로 인식이 변화할 수 없음은 시작부터 알고 있었

다. 더 중요한 것은 생태교통 사업 이후의 노력임을 시작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다. 생태교통 사업의 주무대였던 행궁동은 생태교통 사업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주거환경 정비로 인해 깨끗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하였다. 커피전문점 및 공방 등 젊은 층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작 차 없는 생활이라는 가치는 어느덧 사라지고 차량에 의해 마을은 다시 지배당하고 있다. 다만 생태교통의 가치를 계승하고자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 행사의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큰 가능성으로 남아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지원하는 등 생태교통 수원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생태교통 수원에서 이루고자 했던 가치는 차 없는 거리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차량에게 빼앗긴 사람의 공간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생태교통 사업을 위해 고생하고 희생했던 주민들과 모든 관계자에게 드릴 수 있는 희망이라는 선물일 것이다. 자동차에게 빼앗긴 사람의 공간을 되찾아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생태교통 사업을 최초로 추진했던 지자체라는 훈장 외에 남은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셋째,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다.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법정계획 수립과정에서 전향적으로 시민의 참여공간을 확대한 정책으로 출발하였지만 이후 도시정책 분야로 범위를 넓히고 참여인원의 확대를 통해 외연확대와 숙의적 토론문화의 확산 등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최근에는 시민계획단 리더그룹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자체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더 큰 발돋움 을 위해 시민계획단의 최초 공유했던 운영 원칙을 스스로 되짚어보고 더 큰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시민계획단은 ①사익보다 공익에 우선합니다. ②개인보다 수원을 대표합니다. ③수원시 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이 3대 원칙은 누구의 지시도 아닌 시



행궁동생태교통특화거리 © 수원시청



도시계획 청소년계획단 원탁토론회 © 수원시청

민계획단 스스로 만든 원칙이다. 이 원칙을 되새기고 더 큰 성장을 도모한다면 현재 침체된 운영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 4학년 국정교과서에 실린 과거 수원시의 혁신정책으로 기억될 수 있다.

앞서 검토한 마을르네상스, 생태교통,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사업에 대해서 단순한 예산규모의 증가, 추진횟수, 참여인원 등 정량적 수치로 확대를 바라보지는 않았다. 최초 정책추진 과정에 담겼던 가치가 현재도 계승, 발전되고 있는가를 개인적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현재 시점에서 높은 함계점을 부여하기에는 분명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마을르네상스 정책과 같이 마을르네상스에 대한 지속적 고민이 가능한 조직의 존재는 그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필수요소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다시 한 번 무엇을 키울 것인가? 스스로 묻는다. 생태교통과 속의적 토론 문화의 확산이 더 크게 키워야할 수원 가치라고 판단된다면 이에 합당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떻게 키울 것인가?

민선5기 사람중심의 혁신정책은 열린 행정을 넘어 믿음의 공유과정으로 시민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평한다. 시민은 민원만을 제기하는 주체가 아닌 지역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실현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행정에 주었다. 행정은 정책추진을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시민들에게 주었다. 이러한 믿음의 공유 과정은 그 어떤 성과보다 값진 성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믿음의 공유라는 가치를 실효적인 성과로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민선5기 혁신정책의 융·복합화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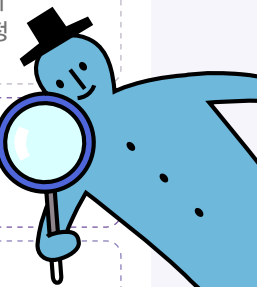
첫째, 마을르네상스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의 결합 혹은 연계를 제안한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 커뮤니티 보드 등 다양한 선진사례가 존재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인도 케랄라 주의 주민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케랄라 주 주민계획은 수원시의 마을계획,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하나로 결합된 정책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현행 주민참여 예산제의 지역회의 단계에서 마을계획단 운영 요소를 반영하여, 3~5년 단위의 마을발전과 연동된 계획적 틀을 갖추고,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이후 주민 스스로 실현가능한 사업은 마을르네상스 사업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재와 같이 행정주도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은 현행과 같이 운용하면 된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중장기 비전계획 성격을 강화하고, 마을계획단의 중장기 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마을 만들기추진단의 마을계획단 운영과 예산재정과의 주



인도 케랄라 주 주민계획 추진 과정

| 각 단계 | 시기 | 목적 | 주요활동 |
|------------------------------------|---------------|---|--|
| 1단계 마을총회 (Grama Sabha) | 전년도 8월~11월 |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발 | 마을 학교 등에서 모임 갖기 전체 회의 및 소규모 집단 토론 |
| 2단계 발전 세미나 | 전년도 10월~3월 | 보유 자원과 문제에 대한 평가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 목록 만들기 | 자료 수집, 현장 답사, 지역발전 리포트 쓰기, 발전 세미나 개최 |
| 3단계 테스크 포스 활동 | 1월~7월 | 발전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들을 공식 프로젝트로 만들어가기 | 모임, 토론, 프로젝트 제안서 초안 만들기 |
| 4단계 그램 판차야트 의회 | 3월~ 익년 3월 | 그램 판차야트 단위에서 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 프로젝트 우선순위 정하기 마을단위 계획의 초안 확정 |
| 5단계 블록 및 디스트릭트 판차야트 의회 | 4월~11월 | 블록 및 디스트릭트 판차야트 단위에서 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 마을단위계획 분석 및 보완 프로젝트 개발 |
| 6단계 자원봉사 기술 지원단 및 전문가 위원회 | 3월~12월 |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기술적 교정 | 프로젝트 내용 검토, 평가, 개선책 제안 |
| 7단계 자금 교부 및 프로젝트 집행 | 7월~ 익년 7월 | 지역계획 틀 속에서 프로젝트 집행 및 모니터링 | 계좌 개설, 주 재정부서에서 자금 받기, 수혜자 위원회 조직, 사업, 집행자 선 정, 모니터링 위원회 활성화 |



* 출처: 수원시(2013), 2013 수원 마을계획단 운영 최종보고서 p.20



케랄라 주 주민계획 © MINISTRY OF PANCHAYATI RAJ



7000인시민대합창 © 수원시청



시민봉사과YES종합민원실 © 수원시청

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이원화되어 있어 인도 케랄라 주 주민계획과 같이 하나의 정책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나, 부서 간 연계 및 T/F 조직을 통해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온/오프라인 참여시스템을 결합하는 숙의적 토론구조의 확립이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온라인 시민모니터단, 오프라인의 시민계획단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결합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이슬란드에서는 2008년 외환위기 이후 2009년부터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온라인 협치(Governance)가 추진되었다. 국민참여형 헌법개정을 위해 2010년 무작위로 선발된 국민 950명이 참여하는 'National Forum'을 구축하였으며, 헌법 제반 사항에 관한 토론을 실시하고 이를 각 단계마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Participedia, 2014). Forum의 참여 플랫폼은 SNS로 구동되었으며, 헌법 개정 전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직접 전달되었다. 헌법개정안 역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작성하였는데 참여의견을 밝힌 522명의 시민후보 중 25명을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혁위원회(Constitution Reform Council) 대표로 선출하여 진행하였으며, 헌법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 수정사항을 매주 공개, 일반 시민들은 SNS 통해 토론에 참여 가능하였다(정장훈 외, 2014). 새로운 헌법개혁의 과정에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기 쉬운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Honore, 2014), 이러한 과정을 거쳐 헌법개혁위원회는 개헌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 2012년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 2/3의 지지를 받아 가결되었다. 이러한 아이슬란드의 경험을 수원시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어, 수원시의 유사한 참여형태를 결합하여 숙의적인 토론문화에 이어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혁신적 정책에 도전해보기를 희망해본다. 이를 위해 관련 조직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조직은 시민 참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수원시의 숙의적 토론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등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성숙시키는 역할이 강조되었으면 한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역행은 참된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에서 나타나는 경험부족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해본다. 일본 시부야대학은 도시 전체에서 '논다', '배운다', '만든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활동으로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 뮌헨 시민대학에서는 사회적 삶에 대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대화의 장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도 시민자치대학의 운영을 통해 시민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반시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 일반시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본다.

마지막으로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이 수원시의 내재적 가치향상을 위한 노력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질적 성과로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기억되기를 희망해본다.



팔달산, 정조대왕 동상 © 수원시청

정조의 더 큰 도시 '화성' 만들기

이달호 | 수원화성연구소 소장

인재양성의 요람 규장각 설치

국가와 도시를 경영하는데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바로 인재양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의 설치이다. 모든 생각과 훌륭한 계획과 기획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그것을 완성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알파고시대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인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진리는 절대 불변이다.

정조의 치적 가운데서 가장 먼저 뽑아야 할 것은 규장각의 설치이다. 정조는 1776년 3월 10일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규장각 설치를 명하여 9월 25일 창덕궁에 완공을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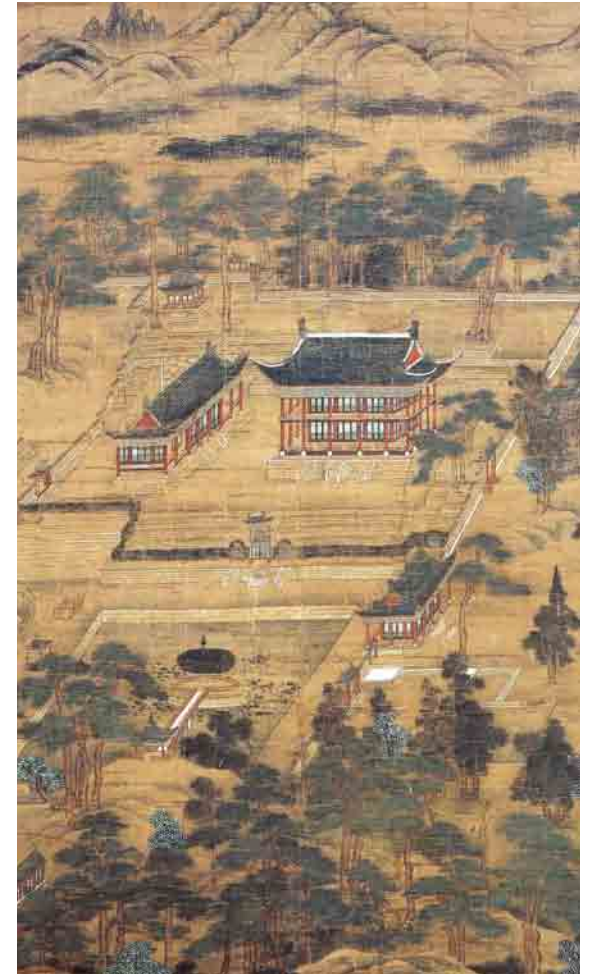
규장각은 역대 왕들의 친필·서화·고명(願命)·유교(遺敎)·선보(璿譜) 등을 관리하던 곳이었으나 차츰 학술 및 정책 연구기관으로 변해갔다. 더 나아가 과거 시험과 초계문신(抄啓文臣) 제도도 함께 주관하였다. 특히 초계문신은 글 잘하는 신하들을 매월 두 차례씩 시험을 치른 후 상벌을 내려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제도였다. 따라서 학문의 진작은 물론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조의 친위세력 확대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곳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얼 출신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이수 등이 검서관으로 등용이 되어 북학과 다양한 선진 과학 문물을 탐구하였다. 이들과 교유한 실학자 이서구가 있었고 다산 정약용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청나라 서적을 참고하여 화성 건설의 기본 설계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특히 정조는 즉위하면서 외국 서적을 구해 오도록 하였다. 부국강병과 인문학 진흥을 위해서는 선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북경에 사신으로 간 이은(李澗), 서호수(徐浩修) 등이 정조의 명령에 따라 1977년 2월 24일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을 찾아냈는데 모두 5,020권에 502상자였다. 그 값으로 은자(銀子) 2천 1백 50냥을 지급하고 한양으로 수레에 실어 운반하였다. 그리하여 규장각의 장서는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을 포함하여 약 8만여 권을 헤아렸다. 다산 정약용은 『고금도서집성』책에 실린 16세기 유럽에서 고안된 '기묘한 기계'들의 제작법 및 작동 원리를 다룬 책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고안해낸 것이다.

자연친화적 자연개조사업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천하지대본이며 치산치수를 잘해야 나라가 융성한다. 산과 강하천을 잘 다스려야 홍수피해와 가뭄피해를 막고 자연환경을 잘 보호할 수 있으며 국토를 더욱 아름답게 꾸려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따라서 산림을 적극 보호하고 조성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서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잘 꾸리며 나라의 면모를 아름답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창덕궁 규장각도 「昌德宮 奎章閣圖」

정조는 화성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성곽 축조는 물론 광교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이용하여 농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만석거는 1795년 3월 초 1일 독을 쌓기 시작하여 5월 18일 완성되었다. 이 지역은 소금기가 있는 땅으로 멀리서 바라보면 모두 황량한 곳이었다. 마침내 진목정 아래에서 시내를 잘라 방죽을 쌓고 물을 채워 갑문(閘門)을 설치하여 물을 대기 이롭게 하였다. 관개할 때에는 널판을 열고 물을 내보낼 때 그 많고 적음을 적당히 하였다. 그 아래에 이익을 받는 논은 모두 고등밭 북쪽 벌판이고 장안문 밖에서부터 새로 개간한 곳을 다 함께 대유평(大有坪)이라 하였다.



만석공원 © 수원시청

만석거[萬石渠] 남쪽 언덕 위에 정자 하나를 세웠는데 맑고 깨끗한 물을 내려다보고 기름진 들판을 바라볼 수 있으니 이 정자에 올라가 바라보는 경치는 호남을 뒤흔들 만하였다. 1796년 봄에 정조 대왕께서 명령을 내려 그 정자를 영화정(迎華亭)이라 하고 수원부 유수 조심태가 쓴 편액을 걸었다. 1795년 우리나라 전역에 왕가뭉이 들어 농사를 망쳤지만 수원의 만석거를 이용한 대유둔 벌판은 풍년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이에 고무되어 정조는 안녕리에 만년제와 화성 서쪽에 축만제를 건설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화성 서쪽에 기왕의 만석거보다 3배 정도 큰 축만제가 건설되었다. 축만제는 화성의 서쪽 여기산 아래 축조한 저수지로 1799년(정조 23) 내탕금(內帑金) 3만 냥을 들여 축만제둔(祝萬堤屯)의 관개시설로 만들어졌고 수문 2곳을 갖추었다.

몽리 면적은 232석락으로 화성 주변의 인공 저수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만석거와 만년제에 뒤이어 축조된 축만제는 천년만년 만석(萬石)의 생산을 축원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일명 서호(西湖)로 불리고 있으며 저수지 한복판에는 인공 섬을 만들어 화목을 심고 가꾸어 해질녘 낙조 드리운 서호 '서호낙조(西湖落照)'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다.

현재 서호는 상당 부분이 매립되었으며, 그 주변은 공원으로 개발되었다. 이 서호의 물을 이용하여 서둔(西屯)을 경영하였는데 서둔은 정조가 화성을 건설한 후 수원을 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자립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운영한 국영농장이었다. 정조는 새 도시 수원을 자립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썼다. 특히 화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의 재원(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둔전을 운영한 것이다.

수원의 농업 도시의 전통은 이처럼 22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 온 것이다.



서호낙조 © 수원시청

상업과 교통의 중심도시

도시가 부흥하려면 교통이 편리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물산이 모여들어 상업의 발달로 이어져 사람들이 웅성거리게 된다. 정조가 수원 신도시를 반계 유형원이 지적한대로 넓고 평평하고 교통이 편리한 팔달산 동쪽에 자리 잡은 이유도 바로 실학정신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또한 수원으로 오는 행차길을 힘들게 남태령을 넘게 되는 과천로를 버리고 시흥로를 택한 것도 바로 평평하고 이동의 편리성을 택한 것이다. 그리하여 어머니 회갑연이 열리는 1795년부터 시흥을 통해 신작로가 건설되어 '1번국도'의 원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정조는 상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수원부사 조심태는 새 고을에 점포를 설치하는 일에 대해 본고장 백성들 중에서 장사물정을 아는 사람을 골라 이자(利子)가 없는 돈 6만 냥을 떼어내 고을 안에서 부자라고 이름난 사람 중에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 해마다 그 이익 나는 것을 거두게 하되, 3년을 기한으로 정하고 본전과 함께 거두어들일 것을 건의하였다.

더하여 조포사(造泡寺) 중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그들에게도 돈을 빌려주어 종이신(紙鞋)을 만드는 본전으로 삼게 하였다.



서둔 © 수원시청



1. 『해동지도, 수원부』, 고대4709-41
1796년에 신도시 화성이 건설되기 이전 지도로 현재의 영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2. 『수원부지도 水原府地圖』 1872년
화성 건설 후 큰 도회로 성장한 모습을 『수원부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는 화성의 모습이 내부의 행궁, 중영 등의 건물과 함께 묘사되어 있다.



옛 만석거의 소나무 숲과 연꽃

1800년대 당시 중심 상권은 종로를 중심으로 한 북수동 일대의 상설 점포인 시전상가와 반영구적인 가가(假家)시장이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성내 시장'인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규모가 작은 시장이 팔달문 밖에 있었다. 바로 '성의 시장'인 것이다.

한편 화성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교통의 중심을 양재역에서 수원의 영화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였다. 삼남으로 가는 길은 원래 양재역을 시작으로 광주와 용인을 거쳐 죽산으로 통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정조는 1796년 화성성역이 마무리될 즈음에 양재역을 영화역으로 고치고 역참(郵站)을 화성 북문 밖에 옮겨 설치하였다 이는 수백 년 이상 삼남지방으로 물자와 사람들이 오가던 '길'에 대한 혁명적 변화였다.

이로 인하여 지금 '1번국도'로 불리는 원형이 탄생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광주지역과 용인지역 보다는 수

원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는 양재역을 시발로 판교의 낙생역을 거쳐 용인을 통해 죽산, 안성, 평택으로 갈라지는 기존 도로의 개념이 수원을 중심으로 개편된 것을 의미한다.

영화역의 조성으로 수원이 삼남으로 가는 요충지가 됨으로써 행궁 앞 중심에 십자로가 조성되고 창룡문을 통해 광주로 가는 도로가 조성되고 장안사거리는 'T'자형 도로로 이곳에서 화서문을 통해 안산으로 통하는 도로가 되었으며 팔달문을 조금 지나 동쪽으로는 용인으로 향하고 사도세자가 문헌 안녕리까지는 능행길이, 그 옆으로는 병점을 지나 오산을 거쳐 진위.평택으로 가는 도로가 조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은 삼남은 물론 서울, 광주, 용인, 안산, 남양, 안성 등으로 사방팔방 뻗어가는 교통의 중심이 되고 물산이 모여드는 상업의 구심점이 되었다.

도시조경과 숲의 도시

'숲'은 생태환경의 보고이며 인간 생존에 필요한 많은 자원을 제공한다. 숲은 인간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면서 정신적 안정감을 주고 공기 중의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하거나 물의 양을 조절하여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줄여준다. 침엽수 등은 살균작용을 하는 물질을 내뿜어 약효도 또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숲의 조성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지속가능한 도시와 국가를 만드는 데서 필수적이고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가치이다.

정조대왕은 화성을 건설하면서 관청, 도로, 다리, 상가 등의 도시기반 시설은 물론 저수지와 둔전을 만들어 생산기반 시설도 완벽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시조경도 또한 중요시 여겨 도로변에 수많은 나무를 심었다. 버드나무, 뽕나무, 개암나무, 밤나무를 가리지 말고 무조건 나무를 널리 심어 숲을 이루어서 울창하게 경관이 달라지는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이 또한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고을 소재지와 역마에 집집마다 나무를 심는 일을 장려하였다. 그리하여 조시 조정의 측면에서 소나무, 뽕나무, 측백나무, 느릅나무, 오동나무, 가래나무, 버드나무, 연, 대나무 등을 심었다.

수원추팔경 중 미로한정에서 국화를 완상하는 '한정품국', '수원팔경' 중 '복지상련' 즉 복지에 곱게 피어난 연꽃 등은 수원의 대표적인 꽃이었다. 소나무는 지금도 '노송지대'로 남아있고 옛 그림과 어른들의 증언에 따르면 창룡문 지역과 운동장 사거리부터 만석거 사거리까지의 도로는 낮에도 걷기에 무서우리만치 울창한 소나무가 뻗뻗하였다고 한다.

정조는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도시조경적인 측면에서 남지, 동지, 복지, 용연 등의 인공 연못을 뒀다. 이 인공 연못의 조성으로 수문과 배수의 역할은 물론 각종 꽃과 나무를 심어 도시의 미관을 한층 격조 높게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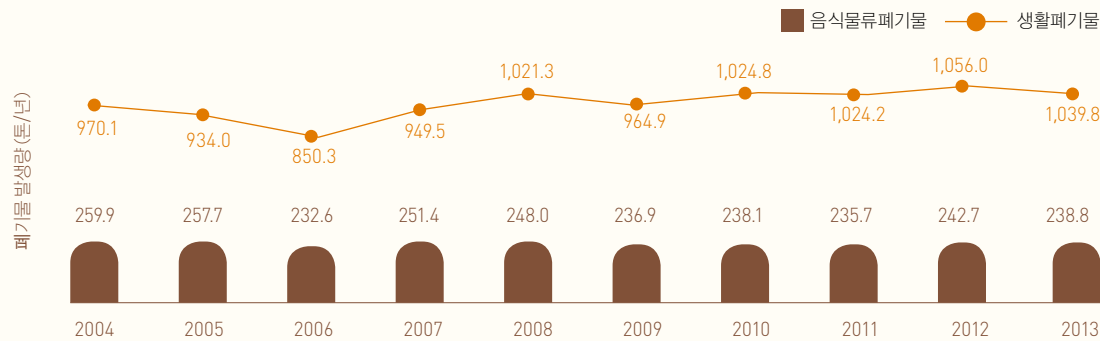


수원시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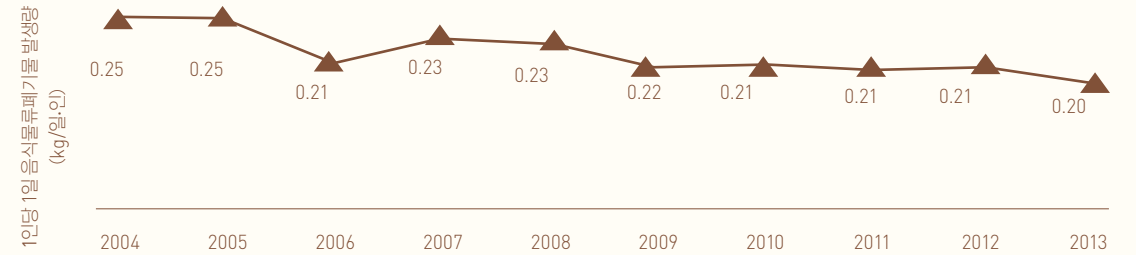
허현태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수원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원시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이를 보이나, 2012년 대비 2013년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5%,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1.6% 감소하였다(그림1). 수원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2004년 ~ 2007년 27% 내외, 2008년 약 24%, 2009년 약 25%, 2010년 ~ 2013년 23%로 나타나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수원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 259.9톤/일에서 2013년 238.8톤/일로 8.1% 감소하였다. 수원시 1인당 1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각 해당연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2004년과 2005년 0.25kg/일·인으로 나타나 분석대상 기간 중 비교적 높은 발생량을 보였으며, 이후 최근까지 0.20 ~ 0.23kg/일·인 내외의 발생량을 보이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림 1] 수원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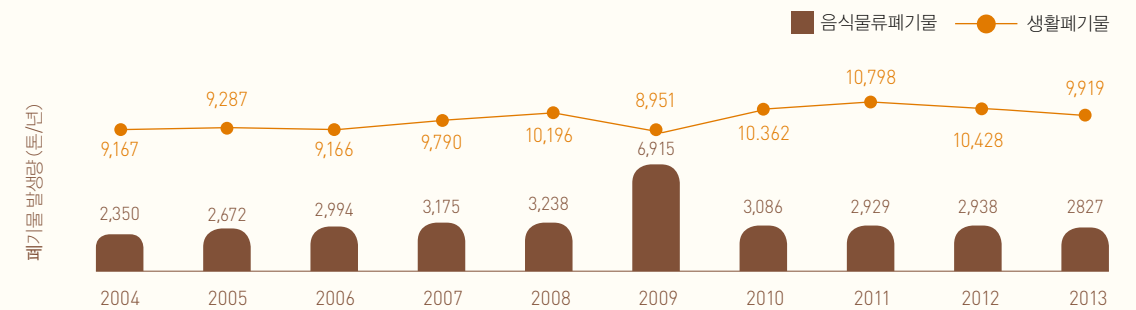


수원시 1인당 1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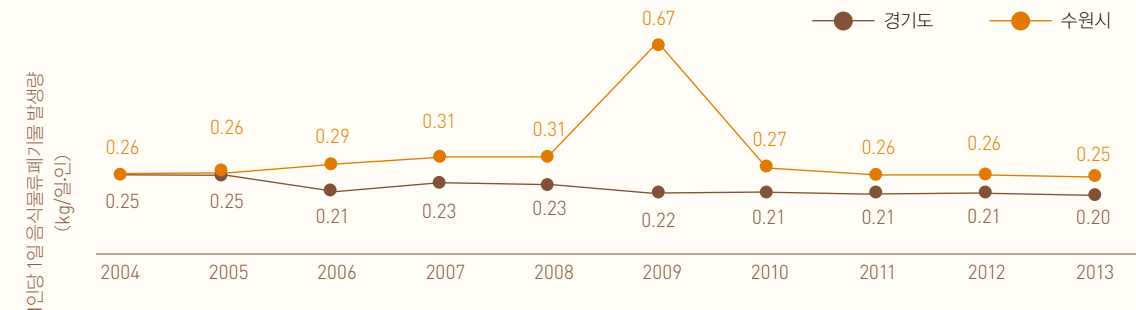
경기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경기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총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04년 9,167톤에서 2013년 9,919톤으로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2009년까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0년과 2011년에 전년대비 감소하고 2012년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경기도 1인당 1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2009년을 제외하고 약 0.25kg/일·인 ~ 0.31kg/일·인정도로 수원시 1인당 1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대비 평균 29.3% 정도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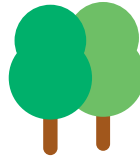


경기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경기도 및 수원시 1인당 1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비교

수원시 자전거 교통사고 분석 수원시 자전거 교통사고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유형별(차대자전거, 자전거대사람, 자전거단독), 도로유형별(단일로, 교차로), 연령대별(20세 이하~65세 이상)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데이터와 수원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시민보험을 가입한 시민보험사에 접수된 사고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시하였다.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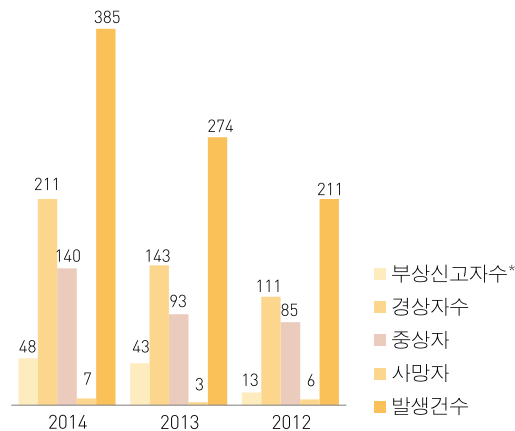
도로교통공단 TAAS 경찰DB¹를 통해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수원시 자전거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2015년 데이터는 현재 TAAS 데이터 구축중임에 따라 분석에 활용할 수 없었다.

수원시의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2년 211건, 2013년 274건, 2014년 385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생태교통 수원 2013” 이후 자전거 활성화 정책추진 및 시설개선 사업에 따른 이용자 증가의 결과로 보인다.

수원시 자전거 사고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합계 |
|---------|-------|-------|-------|-----|
| 발생건수 | 211 | 274 | 385 | 870 |
| 사망자 | 6 | 3 | 7 | 16 |
| 중상자 | 85 | 93 | 140 | 318 |
| 경상자수 | 111 | 143 | 211 | 465 |
| 부상신고자수* | 13 | 43 | 48 | 104 |



* 부상신고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1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 국가 공식통계는 경찰에 신고 되어 처리된 경찰DB임

자전거 사고유형별 특성 분석

사고유형별 분석결과 차대자전거의 사고건수가 773건(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전거대사람 90건(10%), 자전거단독 7건(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대부분이 차대자전거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사고유형별 비율은 명확한 사고유형 파악이 어려운 기타를 제외할 경우 차대자전거 사고에 해당하는 측면직각충돌이 188건(22%)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진행 중 추돌 46건(5%), 보도 통행 중 14건(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분류된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명확한 유형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측면직각충돌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망자 수 또한 측면직각충돌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측면직각충돌 사고가 많은 이유는 교차로, 횡단보도, 이면도로 등에서 차량과 자전거간의 상충 발생에 의한 사고와 건물, 노상주차 차량, 기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에 의한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사고유형별 현황(2012~2014)

(단위: 건, 명)

| 구분 | 발생건수 | 사망자수 | 중상자수 | 경상자수 | 부상신고자수 | |
|--------|--------------|------|------|------|--------|----|
| 차대자전거 | 정면충돌 | 13 | 0 | 4 | 7 | 3 |
| | 측면직각충돌 | 188 | 7 | 70 | 101 | 19 |
| | 진행 중 추돌 | 46 | 2 | 19 | 22 | 3 |
| | 주정차중 추돌 | 7 | 0 | 4 | 2 | 1 |
| | 기타* | 519 | 6 | 187 | 286 | 59 |
| 소계 | 773 | 15 | 284 | 418 | 85 | |
| 자전거대사람 | 횡단 중 | 5 | 0 | 4 | 1 | 0 |
| | 길가장자리 구역통행 중 | 2 | 0 | 0 | 2 | 0 |
| | 보도통행 중 | 14 | 0 | 5 | 7 | 2 |
| | 기타* | 69 | 0 | 24 | 35 | 14 |
| 소계 | 90 | 0 | 33 | 45 | 16 | |
| 자전거단독 | 공작물충돌 | 2 | 0 | 0 | 2 | 0 |
| | 기타* | 5 | 1 | 1 | 0 | 3 |
| 소계 | 7 | 1 | 1 | 2 | 3 | |
| 합계 | 870 | 16 | 318 | 465 | 104 | |

* 기타: 명확한 유형파악이 어려운 사고



광교산 자전거 대여소 © 수원시청



광교산 공영자전거 대여소 개소식행사 © 수원시청

도로유형별 사고 특성 분석

도로유형별 사고비용은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가 441건(51%), 단일로에서의 교통사고가 377건(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로의 경우 명확한 유형파악이 어려운 기타의 사고 건수가 30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로 가장자리,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정비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안의 사고가 282건으로 상충이 많은 교차로 내에서의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유형별 사고발생건수(2012~2014)

(단위: 건)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합계 | |
|------|--------|-------|-------|-----|-----|
| 단일로 | 횡단보도상 | 18 | 20 | 23 | 61 |
| | 횡단보도부근 | 4 | 2 | 6 | 12 |
| | 터널 | - | 1 | - | 1 |
| | 교량 | 1 | - | - | 1 |
| | 기타 | 64 | 102 | 136 | 302 |
| | 소계 | 87 | 125 | 165 | 377 |
| 교차로 | 교차로안 | 62 | 84 | 136 | 282 |
| | 교차로부근 | 47 | 48 | 64 | 159 |
| | 소계 | 109 | 132 | 200 | 441 |
| 기타 | 14 | 17 | 19 | 50 | |
| 미분류* | 1 | - | 1 | 2 | |
| 합계 | 211 | 274 | 385 | 870 | |

* 미분류 : 해당 변수항목의 데이터 값이 없거나(Null), 표준 코드 값이 아닌 경우를 말함보험 및 공제조합 자료의 경우 교통사고보고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표준항목으로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미분류 수치가 상당수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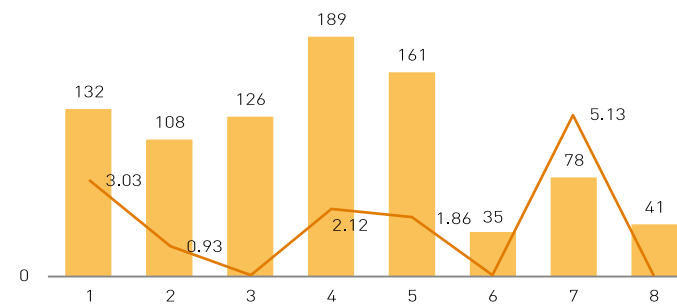
연령대별 사고특성 분석

연령대별 사고건수는 41세~50세가 189건, 51세~60세가 161건, 20세 이하 132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수는 20세 이하 4명, 41세~50세 4명, 51세~60세 3명, 65세 이상 4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치사율이 5.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2012~2014)

(단위: 건, 명, %)

| 구분 | 20세 이하 | 21~30세 | 31~40세 | 41~50세 | 51~60세 | 61~64세 | 65세 이상 | 미분류 | 합계 |
|---------|--------|--------|--------|--------|--------|--------|--------|------|-----|
| 발생건수 | 132 | 108 | 126 | 189 | 161 | 35 | 78 | 41 | 870 |
| 사망자수 | 4 | 1 | 0 | 4 | 3 | 0 | 4 | 0 | 16 |
| 중상자수 | 33 | 40 | 48 | 80 | 59 | 19 | 28 | 11 | 318 |
| 경상자수 | 67 | 59 | 74 | 104 | 91 | 14 | 30 | 26 | 465 |
| 부상 신고자수 | 33 | 13 | 8 | 9 | 17 | 4 | 16 | 4 | 104 |
| 치사율 | 3.03 | 0.93 | 0.00 | 2.12 | 1.86 | 0.00 | 5.13 | 0.00 | - |



생태교통 2013 © 수원시청

보험사 데이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원시민 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접수된 자전거사고 건수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보험사 데이터의 경우 보험료 지급을 위한 양식에 의해 사고이력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고유형, 도로유형, 연령 등의 정보가 부족하게 기입된 경우가 많아 분석에 한계가 있다.

자전거 사고유형별 특성 분석

분석결과 자전거 단독 사고가 전체사고(1,420건)의 69%(982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조작능력 및 부주의와 도로환경에 의한 단독사고 유형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보험신고 데이터의 특성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단독사고 신고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수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16명이었으며, 차대자전거 사고 사망자 13명(81%), 자전거단독 3명(19%)으로 사고 시 부상정도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과 자전거 간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사고유형별 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비율(2013~2015)

(단위:건, 명, %)

| 구분 | 자전거 단독 | 차대자전거(차대자전거) | 자전거대사람 | 합계 |
|---------|----------|--------------|---------|-------|
| 발생건수(건) | 982(69%) | 336(24%) | 102(7%) | 1,420 |
| 사망자수(명) | 3(19%) | 13(81%) | 0 |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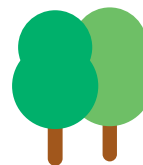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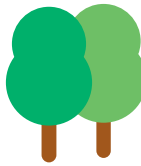
도로유형별 사고 특성 분석

도로유형별로는 단일로가 1,330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자전거 도로유형별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인데 단일로의 사고발생건수가 높은 것이 보험사 자료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수의 경우 교차로 11명, 단일로 5명으로 교차로 사고의 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현황(2013~2015)

(단위:건, 명)

| 구분 | 교차로 | 단일로 | 합계 |
|------|--------|------------|-------|
| 발생건수 | 90(6%) | 1,330(94%) | 1,420 |
| 사망자수 | 11 | 5 | 16 |



연령대별 사고특성 분석

연령대별 사고건수는 20세 이하가 428건, 51세~60세가 251건, 41세~50세 234건 순으로, 20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사고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망자는 65세 이상 8명, 20세 이하 2명, 51세~60세 2명, 61~64세 2명 순으로 65세 이상의 치사율이 5.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2013~2015)

(단위:건, 명, %)

| 구분 | 20세 이하 | 21세~30세 | 31세~40세 | 41세~50세 | 51세~60세 | 61세~64세 | 65세 이상 | 합계 |
|------|--------|---------|---------|---------|---------|---------|--------|-------|
| 발생건수 | 428 | 143 | 143 | 234 | 251 | 63 | 158 | 1,420 |
| 사망자수 | 2 | 1 | 1 | - | 2 | 2 | 8 | 16 |
| 치사율 | 0.47 | 0.70 | 0.70 | 0.00 | 0.80 | 3.17 | 5.06 | - |

분석결과와 시사점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정책으로 인해 자전거 기반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자전거 사고 또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분석결과 2014년 한 해 수원시 자전거 사고건수는 모두 385건으로 2012년 211건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망자수의 경우 2012년 6명에 비해 2014년 7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중상자, 경상자, 부상신고자 등 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별 사고특성은 TAAS 데이터 분석결과 41세~50세 189건, 51세~60세 161건, 20세 이하 132건 순으로 사고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망자 수의 경우 20세 이하(4명), 41세~50세(4명), 65세 이상(4명) 등으로 65세 이상의 치사율(5.1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데이터 분석결과 연령별 사고건수의 경우 20세 이하의 사고건수가 428건으로 가장 많아, TAAS 분석결과에 비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망자의 경우 65세 이상이 8명으로 치사율의 경우 TAAS 데이터 결과와 동일하게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자전거사고 유형별 및 도로유형별 분석결과 TAAS 데이터는 차대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전거와 차량 간의 사고가 주요 유형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측면직각충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도로유형별로는 단일로의 경우 횡단보도상 사고가 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차로는 교차로 안에서의 사고가 28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차량, 자전거, 보행자 간의 상충이 많이 발생하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안에서의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로의 경우 명확한 유형과약이 어려운 기타 사고건수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결과는 도로 가장자리, 이면도로 등의 사고건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보험사 데이터 분석결과에서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개인의 사고건수가 대부분인 보험데이터의 특성상 자전거 단독사고가 대부분의 사고유형인 것으로 나타나 TAAS 데이터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차대자전거 사고 외에도 자전거 조작 능력, 도로변 시설물 등의 원인에 따른 자전거 단독 사고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방향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TAAS

데이터 및 보험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와 같은 분

석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맞춤형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전거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나 조작능력 등으로 인한 인적요인과 기하구조 및 시설상태 등과 같은 도로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 및 자전거 이용자 교육, 법제도 개선 및 안전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도로환경 요인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자전거교통 시설 개선, 위험지역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특성 분석을 통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부 근거리교통은 보행, 자전거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핵심전략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시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정비가 필요하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고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교차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신호등, 자전거 포켓 등의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이면도로 진출입구와 자전거도로 접속부에 대해서는 시인성이 높은 노면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간선도로의 차로 폭을 줄여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 및 속도를 낮추고 보행과 자전거의 통행품질을 높이는 도로다이어트(Road Diet)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심부 외곽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자전거 관련 법·제도 개정 측면에서 자전거도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도입이 필요하다. 자전거도로 특별 안전점검은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요 통학로, 하천도로 등 자전거도로 주요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사고 잦은 구간과 위험지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및 시행, 자전거 이용자 안전운행 요령 및 교육·홍보, 자전거 이용자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자전거 안전시설 및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 측면에서는 안내 및 안내표지, 조명시설, 난간 등 안전시설 정비(교차로 유색포장, 블라드 Lighting 설치 등)가 필요하며 단절구간 연결, 도로폭 확장, 노면보수 등 기존 자전거도로로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안전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추진으로 운전자를 위한 급브레이크 체험 세미나(예 : 속도와 자전거와의 관계 등), 음주운전 체험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 공영자전거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 수원시청

다양성을 인정하는 섬세한 정책

윤종욱 | 협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경기도수의사협회 반려동물문화교실 © 수원시청

인간관계론의 대부라 일컫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 선별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익이 금전적이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든. 또한 널리 알려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앞부분에는 ‘인간은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는 용서할 수 있으나 자신의 돈을 빼앗은 자는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속성은 늘 이기적이고 또한 자신이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가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유교사상에 의해 통치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중국 역사는 한비자(韓非子)의 법가사상(法家思想)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다. 한비자는 맹자의 성선설을 비판하고 순자의 성악설에 기반하여 법가사상을 정립하고, 군주가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강령으로써 좋은 제도와 정책을 의미하는 법(法), 형벌

과 은덕을 규정하는 세(勢), 그리고 성과평가 및 인재 등용을 뜻하는 술(術)이라는 통치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인간의 본성이 선하지 않다고 정의하고 이를 제어하는 쪽으로 정치제도를 구축한 것이다.

가끔 강아지를 데리고 아파트 앞에 조성된 공원으로 산책을 간다.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정도 주인과 산책을 하는 강아지는 아파트를 나서면 경충경충 뛰면서 부지런히 길을 재촉한다. 강아지 산책길에는 필히 휴지와 비닐봉투를 준비해야 한다. 이놈이 공원에만 들어서면 습관처럼 배변을 하기 때문이다. 채변을 한 후에는 산책 내내 비닐봉투를 들고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야 내용물은 화장실에 처리하고 비닐봉투는 쓰레기통에 묶어 버린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겠으나 공원에는 간간히 강아지 배설물을 그냥 방치해 둔 경우를 목격하는데,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언젠가 강아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아파트 주민을 보았다. 강아지 주인의 손에는 채변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그 봉투를 음식물 쓰레기 처리 후에 버리는 ‘비닐봉투 수거함’에 집어넣고는 유유히 집으로 들어간다. 왜 사람들은 공원에 강아지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옆에 버리는 것일까? 이들 모두를 단순히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몰아붙이면 그만일까? 아래에 제시되는 두 가지 사례는 이 현상을 본질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다.

아이젠하워 총장의 실용적 문제해결 능력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을 지낸 바 있는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컬럼비아대학 총장을 지낸 바 있다. 어느 날 한 가지 문제에 직면했는데, 학생들이 한 강의실에서 다른 강의실로 급히 이동할 때 금지 풋말을 무시하고 잔디밭을 밟

고 지나간다는 것이었다. 대학행정팀에서는 학생들의 징계수준을 높여서 황폐해진 잔디밭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아이젠하워는 관계자들에게 풋말과 울타리 대신 발자국으로 패인 잔디밭에 아예 길을 내도록 했고, 대신 사용하지 않는 길은 메우고 꽃과 잔디를 심도록 했다.

그는 학생들의 이기적 속성이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했고, 그 결과 학교 당국과 학생 모두에게 만족을 준 의 사결정을 한 것이다.

천안시 거리 쓰레기통 21년 만에 부활

1995년에 폐지된 거리 쓰레기통이 21년 만에 부활했다는 기사가 며칠 전에 실렸다(연합뉴스 2016/05/19).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안 시내 거리 쓰레기통이 1995년에 폐지된 지 21년 만에 부활했다. 천안시는 19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버스 정류장 등 많은 이들이 머물거나 이용하는 곳에 종이컵이나 담배꽂초, 비닐봉지 등 소형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천안역과 두정역, 종합버스터미널 주변 등 모두 66곳에 설치됐다.

시 관계자는 "주변이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순기능에 더 큰 기대를 건다"며 "연내 시내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시민들의 협조가 미흡할 경우 쓰레기통은 다시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지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거나 비용이 소요된다는 미시적인 이유로 거리의 쓰레기통을 없앤 것은 참으로 한심한 정책이다. 앞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과 한비자의 법가사상에서 보았듯 인간은 본시 이기적이다. 좋은 정책이라 함은 제도와 규정을 통해 이러한 이기적 속성을 잘 다독거리는 것이 아닐까?

위대한 조직의 특징

경영학 관련 서적 중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라는 유명한 책이 있다. 이 책에서는 경영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좋은 제도와 정책이 조직의 생존을 담보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문화이다. 요약해 보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도와 정책'이 위대한 조직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실 매우 섬세한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부국의 조건'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는 한 때 번성했던 몽고의 예를 들고 있다. 칭기즈칸의 통치 시절에 몽고의 수도에서는 불교, 무당, 천주교, 지역신앙 등의 다양한 종교가 균락을 이루어 번성하고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벌임으로써 상호 이해와 공존을 모색하는 좋은 제도를 갖고 있었다 한다. 이러한 열린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나아가 다양성을 헤아리는 정책 및 제도가 한 국가를 번성하게 하는 요체임을 지적하고 있다.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연인원 5천명에 달하는 재학생 중 단지 평균 2명 정도의 지체부자유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이들 소수를 위해 수억 원에 달하는 장애시설 투자가 이루어져 있다. 단순한 비용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시행되기 어려운 정책이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세심한 지자체 정책도 유의해 볼 만하다. 미국에서는 원인 모를 바이러스로 인해 시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반드시 화장을 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또한 허리케인으로 가로수 하나가 쓰러져도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자세한 절차를 통해 규정화 하고 있다.

글을 마치며

강아지 산책을 시킬 때, 모든 사람들에게 내내 채번 비닐봉투를 들고 다니는 불편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한비자의 법가사상을 다시 한 번 음미해 보자.

지금 학자들이 인의(仁義)를 행하기 위해 노력만 하면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 군주가 모두 공자와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다 공자의 70인 제자처럼 되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오두>

이렇듯 인간은 생각보다 도덕적이지 않다. 결국 공원에는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위한 수거물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은 지자체 행정가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 그냥 강력하고 단순한 몇 개의 정책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잘 따라주면 될 터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비용이나 사후처리 노력은 어찌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단 하나의 자동차 모델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예"모델은 하나밖에 없지만 좋은 차니까 무조건 사서 쓰세요"라고 선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아침에도 신문의 기사 하나가 눈에 띈다. '미세먼지 잡으려 경유값 인상 추진'. 경유값을 인상하면 사람들이 경유차를 안타고,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줄 것이라 판단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공원의 강아지 배설물을 없애기 위해 '강아지를 공원에 동반하는 사람에게는 5천원의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가?

앓과 행앓을 통한 더 큰 수원

- 아는 것을 잘 행할 줄 아는 큰 사람 -

한상미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아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간다. 배움의 영역은 삶 전체이며 배움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르다.

『전습록, 앓은 삶이다』에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곧 삶이며, 살아가는데 배우는 것은 자신에 대한 배려이며 좋은 삶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무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배움 자체에 의미를 두기도 하고 배움을 내세우기도 하며 배움을 실천하기도 한다. 사람마다 아는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양은 달라진다.



『전습록, 앓은 삶이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도서정보)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기도 하고, 아는 것을 잘 가다듬어 행하기도 하며, 아는 것을 행하지 않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예컨대 쓰레기 불법투기, 공공질서, 어린이노약자 보호 등 흔히 양심이라 말

하는 도덕적인 앓을 우리는 알고 있으나 행함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늘 내가 할 일, 일주일의 계획, 1년의 인생, 반년의 삶, 일생의 방향을 그리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동의 실천은 쉽지 않다.

아는 것을 잘 행하는 것은 큰 파급효과를 지닌다

앓(아는 것)과 행앓(아는 것을 행할 줄 아는 것)은 배움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우기 시작한다. 그 시점을 청소년기로 놓고 보면, 배움의 터전이라 말하는 학교 교실 안에는 교사와 학생관계가 존재한다. 먼저 훌륭한 교사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교사가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느냐에 달렸다. 학생은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활용하고 응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청년기에 만난 좋아하는 사람에게 용기라는 힘을 빌려 고백을 행하면 잘 될 확률이 높아지나 용기가 없어 고백을 행하지 못하면 아는 데서도 그치지 못한다. 직장에서 신입사원과 대리, 팀장, 과장 등을 구분 짓는 것은 경력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만들어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지가 중요하다. 신입사원과 대리는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여야 하

1 문성현(2012), 전습록, 앓은 삶이다, 북드라망.



제2회수원시민안전페스티벌 © 수원시청

더 큰 수원을 위한 시민의 앞과 행아웃

며, 팀장, 과장 등은 관리적으로서의 리더십에 근거하여 하는 행동이 팀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 곳 연구원에서는 지식적으로 그 분야에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바탕으로, 지식적 연구가 아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행을 위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훌륭한 연구자인 것 같다. 이를 긍정적 효과 측면에서 보면, 훌륭한 교사-학생 간에는 좋은 성적과 대학진학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연애, 결혼 등의 결실이 맺어질 것이며, 직장 내에서는 성과와 팀워크, 연구원에서는 현실적인 도시정책을 통한 시민의 삶과 연결될 것이다. 즉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바탕으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사람이다.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과 공공, 기업 등 모든 주체가 함께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위한 앞과 행아웃은 어떻게 가능할까?

민선6기 수원시의 비전은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이다. 비전실현을 위한 3대 목표로는 목표1. 안전한 도시 수원(알짜일자리 확대, 엄마품 안전사회 구현, 동·서가 잘사는 수원 실현), 목표2. 건강한 도시 수원(건강미래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목표3. 따뜻한 도시 수원(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복지 실현,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조성, 수원형 시민자치 실현)이다.

수원시 비전과 목표실현은 참여와 소통, 거버넌스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특히 참여와 소통은 시민이라는



수원시민선6기 비전 및 목표 (출처: 더 큰 수원 시정혁신단 활동성과서(2014.09.01))

주체가 더 큰 수원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일상에서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을 흔히 볼 수 있다. 비전-목표-전략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관심만 있다면 ‘아~ 수원시에서 이런 거 하네’ 정도는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가 다니던 길목에 없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던가, 건강한 도시를 위한 공영자전거를 도시 곳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던가, 따뜻한 도시를 위한 고품격 교육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교육에 관한 홍보 포스터를 보았다던가 등의 경험이 있다면 더 큰 수원의 비전과 목표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을 행하기 위한 앞이 중요하다.

내 친구네 골목은 밤에 으스스해서 CCTV가 필요한 사각지대라고 추가 요청할 수 있다. 또 공영자전거를 이용해보니 편리하고 좋아서 주변에 이용을 권하거나 더 먼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도 필요함을 어필할 수 있다. 또한 시민교육에 관한 포스터를 보고 직접 교육에 참여하여 성장했으므로 스스로 교육에 대한 활동 및 교육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앞에 대한 작은 행동과 발걸음이 수원의 변화를 이끌며 더 큰 수원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민 스스로 앞에 대해 구성하여 행하는 것을 통해 더 큰 수원의 비전은 실현될 수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주요행사

5. MAY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1 | 2 | 3 | 4 | 5 | 6 | 7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집위원회 회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선운영 개선방안 연구진 회의 | | |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중 월례회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티투어 확대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 수원시정 연구원 춘계체육대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디자인센터 디자인교육 수료식 (서낭재어린이공원) • 2016년도 4대 폭력 예방교육 |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학세미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초청강연 (도시환경분야 -대기오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정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업무협약 • 수원시정연구원 -제주대학교 업무협약 | |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하반기 정책과제 추가 선정 심의위원회 • 시민디자인 워크숍 '놀이터의 한계와 놀이의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회 초청강연 (저출산 고령화 도시) • 5월 월례세미나 | | |
| 29 | 30 | 31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이 만든 세계의 신도시들 1차 공동연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스마트시티 전문가 초청 강연회 | | | | |

7월
2016

- 1일 금 7월 중 월례회의
- 27일 수 제3회 수원학심포지엄
- 31일 일 도시녹지 침입외래종 취약성 평가모델 개발 완료
대도시 행정구 기능 강화방안 연구용역 완료
수원 약과 복원을 위한 연구 완료
- 6일 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6. JUNE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 | 1 | 2 | 3 | 4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상징캐릭터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의회 의정 토론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 마음건강 치유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회 | | |
| 5 | 6 | 7 | 8 | 9 | 10 | 11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과제 1차 중간보고회 | | |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 | | | | |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학세미나 초 특특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경영평가 현장 실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열린 정책 한마당 | |
| 26 | 27 | 28 | 29 | 30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6기 '더 큰 수원'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디자인 워크숍 '놀이의 재발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디자인센터 운영자문위원회 • 6월 월례세미나 | | |

8월
2016

- 1일 월 8월 중 월례회의
- 18일 목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완료
- 31일 수 제1차 수원시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수립 연구 완료

수원시정연구원 주요행사

연구소식

2016. 06. 02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6월 2일 장안구 보건소에서 안국진 도시환경 연구부 연구위원의 연구과제인 '수원시 마음 건강치유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는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 이병덕 보건행정과장, 김영균 보건행정팀장 등 18명이 참석하였고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설계안 진행사항을 보고하였다.

2016. 06. 08 2016 정책과제 제1차 중간보고회

6월 8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연구진행 현황 점검 및 자문을 통한 연구 내용의 질적 제고를 위한 2016년도 정책과제 제1차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박상우 연구위원의 '수원시정연구원 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엄정숙 초빙연구위원의 '수원 약과 복원을 위한 연구', 한연주 연구위원의 '제1차 수원시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의 세 개 과제가 중간보고를 진행하였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교수, 최용진 수원문화재단 전통문화사업부 팀장, 강신구 수원시 정책팀장, 백광학 수원시 보육아동과장, 박환식 수원시 보육정책팀장, 김영미 수원시 위생정책팀장 등 약 20명이 참석하였다.



행사소식

2016. 05. 13 도시디자인센터 디자인교육 수료식

5월 13일 탑동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의 수료식이 열렸다. 수원시 '꿈꾸는 놀이터' 사업을 위해 도시디자인센터가 준비한 '어린이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 5주간 탑동초등학교 6학년 1반 어린이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새롭게 조성되는 서낭재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마을지도그리기, 공간상상하기, 놀이터 디자인, 모형 만들기, 놀이터 소개하기를 함께 하였고 어린이들은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놀이터를 디자인하였다. 시는 어린이들이 제안한 디자인을 서낭재 어린이공원 조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2016. 05. 19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교류 협력 협약식

5월 19일 '수원시정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연구교류 협력 협약식'이 있었다. 상호 지역 간 발전 및 관광 등 분야의 효과적인 연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이번 협약식은 공동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 연구자료 공유 및 정보교류, 인적교류 및 현안과제에 대한 자문, 공동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행사소식

2016. 05. 19
제주대학교 연구교류 협력 협약식

5월 19일 '수원시정연구원-제주대학교 연구교류 협력 협약식'이 있었다. 학술·정책연구와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진행되었고, 정책연구·자문 등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 자문·심 의 등 연구자의 인적교류, 학술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공동 활용 및 정보자료 상호 교류, 학술회의·세미나·포럼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등을 내용을 협약 체결하였다.



2016. 06. 01
수원시 상징캐릭터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의회 의정토론회

6월 1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제2회 의정발전 토론회가 '수원시 상징캐릭터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제발표는 강우식 ㈜나너우리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수원시 상징캐릭터' 수원시 '활성화 방안'과,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도시디자인센터장의 '수원시 상징캐릭터' 수원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이 있었다. 이어진 토론회는 염상훈 수원시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박순영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권오중 천지창조디자인연구소 대표, 김소라 e수원뉴스 으뜸기자,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수진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교수, 송영완 수원시 정책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세미나 및 강의소식

2016. 05. 17
제1회 초청강연 '한국대기오염 분석을 위한 한-미 협력'

5월 17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회 초청강연이 열렸다. 강연은 '한국대기오염 분석을 위한 한-미 협력'을 제목으로 William H. Brune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석좌교수가 맡았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요와 연구대상지 선정이유, 연구방법 및 일정, 한국 대기오염의 추세 등이 있었고, 수원시 기후대기과, 환경정책과,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



2016. 05. 26
제2회 초청강연 '낮은 복지의 집을 전면 재건축하자'

5월 26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제2회 전문가 초청 강연이 열렸다. 강연은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장)가 맡았다. 주요 내용은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성 위기 도래, 총체적인 지속가능성의 위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전략 등이 있었고 50여명의 직원이 참석하였다.



세미나 및 강의소식

2016. 05. 31
스마트시티 전문가 초청 강연회

5월 31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수원시 스마트시티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제1회 스마트시티 전문가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조영태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위원이 스마트 시티의 개념과 동향, 국내외 스마트시티 선진사례를 내용으로 하였고,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이 스마트시티 법/제도 관련 동향, 지자체에서의 스마트시티 제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윤흥선 수원시 도시계획과 팀장, 이성훈 수원시 정보통신팀장,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연구현황

신규선정

| 연도 | 과제구분 |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 | 시작일 | 종료일 |
|------|------|-------------------------------|------|------------|------------|
| 2016 | 정책 | 수원시 스마트시티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 최석환 | 2016-05-09 | 2016-12-31 |
| 2016 | 정책 | 수원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전략 | 이영안 | 2016-06-01 | 2016-12-31 |
| 2016 | 수탁 | 수원 국제교류센터 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 박상우 | 2016-05-01 | 2016-07-31 |
| 2016 | 수탁 | 수원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 조용준 | 2016-05-01 | 2016-07-31 |
| 2016 | 수탁 | 수원시 자전거 교통사고 특성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김숙희 | 2016-06-01 | 2016-12-01 |
| 2016 | 수탁 | 수원시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행정 효율성 연구 | 김도영 | 2016-06-01 | 2016-12-01 |

연구종료

| 연도 | 과제구분 |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 | 시작일 | 종료일 |
|------|------|---|------|------------|------------|
| 2016 | 수탁 | 영통구청사 건립 타당성 및 부지활용계획 | 안국진 | 2016-01-11 | 2016-05-10 |
| 2016 | 수탁 | 매향동 일원 근대 한옥 실측(기록화) 및 보전 연구 용역 | 안국진 | 2015-12-15 | 2016-05-12 |
| 2016 | 수탁 | 수원시티투어 확대운영 개선방안 연구 | 김숙희 | 2016-01-25 | 2016-05-24 |
| 2016 | 수탁 | 수경 및 물놀이시설 종합관리매뉴얼 작성 연구용역 | 김은영 | 2016-04-01 | 2016-06-29 |
| 2016 | 수탁 | 탄소저감 도시계획 지원시스템 검증을 위한 통합 테스트베드 운영관리 3차 | 최석환 | 2015-07-01 | 2016-06-30 |

수원시정연구원
편집후기

이달호

사람중심의 더 큰 수원을 위하여

김일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도시보다는 사람이 더 큰 수원.

이영안

큰 수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시민들이 세심함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영

가장 기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네요.

진정은

여름의 뜨거움을 이기고 무럭무럭 커가는 식물들처럼
민선 5기, 6기를 통해 만들어놓은 양분으로 더 큰 수원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길 희망합니다.

이경철

회고(回顧)와 반성(反省)을 통해 사람중심의 더 큰 수원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 산

수원을 더 크게 만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